조선중앙일보 - 1935. 06. 27/ 4면/ 1단

니-최 復興의 現代的 意義 (四)

安浩相

그리하야 歷史와 文化는 오직 天才의 周□를 包□하며 自身의 存亡衰退를 다만 이 天才에게 一任할 뿐이다. 모든 文化는 天才를 싸고 돈다 하얏스니, 그러면 天才는 文化를 오직 自己의 手段으로써 끗치개 할 뿐인가? 그는 여긔에 否定하야 말하기를 天才란 單純히 그 自體가 天才에서 끗치는 것이 아니라 如何한 時間이나 如何한 곳을 勿論하고 그 時間 그곳에 天才임을 肯定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天才는 자기가 『對』할 相對物 그것을 前提잡아야 될 것이며, 自己가 『對』할 이것을 他人의 製造에서가 아니라 自己 스스로 製作할 수 잇는 데서 可謂天才라 일흠할 수 잇슬 것이다. 自己가 『對함』 그것은 무엇인가? 그는 卽 文化를 일흠함이다. 天才는 文化에 對한 文化요, 天才는 文化를 前提함으로 또다시 文化를 目的 삼는다. 그리하야 天才는 文化로 일우어젓스며 文化는 天才로 인하야 成立되여진 까닭에 文化는 天才를 産出하고 天才는 文化를 産出하는 것이다.

天才는 如何한人間인가? 文化의 最高峰은 天才의 活躍으로만 達成할 수 있는 同時에 天才는 知와 愛와 觀察과 實踐에서 自己를 完全하고 無限性의 所持者라 感할 수 있는사람, 또 그는 自身이 全的으로 自然에 愛□을 가진 者여야 할 것이라 하얏다. 그는 如何한 사람이라야 天才라 云할가함에 當하야 다시 具體的으로 論하기를 三方面으로 天才를 承認하얏다. 在來에 모든 사람은 말하기를 文化發展의 運行者는 天才的 政治家와 博識者가 될 수 잇다 하얏스니, 니-최는 그와 反對로 文化發展의 運行者는 天才的 政治家나 □□家가 아니요 藝術家와 哲學家와 聖徒에게 限할 뿐이라 하얏다. 文化의 最高峰이 모든 文化의 最後 目標인 以上에는 此 最高峰을 達成할 수 잇는 天才의 産出이 卽 모든 文化의 目的이 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化의 最後 目標는 偉大한 藝術家와 偉大한 哲學家와 또한 偉大한 聖徒의 産出을 必要로 하지 안흘 수 업는 것이다. 文化란 決코 政治的 權利□張 又는 社會的 立法에 依하야 國民과 群衆의 生을 幸福스럽게 하는 데서 成立될 것이 아니다. 群衆 自體가 目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手段 卽 天才에 對한

先鋒的 手段이 되려는 것이며, 國家는 오직 天才의 中樞가 될 것이요 個人의 「保護所나 看護所」의 役割을 施行하는 것에 不過한 것이라 主張하얏스니, 니-최는 다시 自己의 著作인 「차라투스트라」에서 「國家가 終焉을 告하는 날 비로소 사람이 始初한다. 帝王들의 時代는 임의 過去에 □하얏다.」고 絶叫한 것을 우리는 그의 文化의 一郡에서 除할 수 업다고 生覺한다.